

“우리는 시라는 비인간 동료 예술가를 갖게 됐다”



계간 종합문예지 '문학들' 봄호 문화예술 안팎 AI 조명 류인태 교수·노대원 평론가 논제 수록 독자 이해 꾀해 인공지능 경이롭게 봐야 하는 시대...법적 등 한계 상기

세계사적으로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부족 및 격차, 출산율 저하, 초고령 사회 대두, 대체가 돼 가고 있는 AI(인공지능) 등으로 인한 보편적 삶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그것의 데드라인은 바짝 바짝 우리를 삶의 결로 계속해서 당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현상과 흐름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지역 대표 문예지들, 대개 이들은 특집에서 이런 행간을 잡아갔다. 이번 봄호에서 눈에 띄는 특집은 'AI'다.

계간 '문학들' 봄호는 '좌표들' 쪽지에서 AI를 들여다보고 있다. 류인태 교수(전남대 중앙중문학과)의 'AI critique: 지속적 인 현존과 위임의 쓰기에 관하여'와 노대원(평론가) 씨의 'AI 문학·예술지도-AI

문학예술 둘러싼 몇 가지 풍경과 쟁점'이라는 논제를 진행하고 있다.

류인태 교수의 논제는 AI의 생성이 혁명적이고 특정 과업을 다루는 기능의 차원에 서 진입하지만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되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현실의 사례를 들고 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이 대표적 사례다. 막상 두경을 열고 봤더니 AI가 이세돌을 이긴 셈이어서 조금 특별한 기계 수준을 넘어서버린데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이 AI를 경이롭게 봐야 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또 류 교수는 2022년 등장한 챗지피티(ChatGPT)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초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가 "인간과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점을 상

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인간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계를 수용하기 시작한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봤다. 이처럼 AI의 파고가 높더라도 체면정을 통해 인간이 질문하고 AI가 답을 하는 양상에서는 한계가 극명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인간이 창을 담은 AI가 사라져버리는 만큼, AI의 활동이 반드시 인간의 호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AI 시대 글쓰기는 어떨까.

류 교수는 단어와 문장의 샘플링화 그리고 의미의 관계적 구성, 시간적 자연, 맥락의 무한성, 샘플링화를 예측을 하는데 있어 다음에 올 토큰(token)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며 텍스트를 생성하는 등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를 생성, 기계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 등을 포괄한다. 각기 가동되는 언어들이 여러 차이가 있을텐데 진짜 이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지기에 논쟁 자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요즘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단문 위주로 언어를 구사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대

학에서 오랫동안 긴 호흡의 글쓰기 교육 중심으로 추구해왔지만 이런 언어 실행 패턴으로 인해 더 이상 대학 안에서의 긴 호흡의 글쓰기 교육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거대언어모델에 대해 학습 데이터의 패턴 반복을 한다고 기술한다. 그러면서 이 반복이 소위 ctrl+c, ctrl+v로 언명되는 단순 복사가 아니라 동일한 프롬프트에도 매번 다른 출력이 생성하는 것으로 봐서 그냥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내포한 반복이라고 밝힌다.

류 교수는 결론적으로 AI는 반복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극대화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AI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법적, 윤리적, 실존적 차원의 상황에 부합해 있는 만큼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쓰기와 행위의 문법이 필요한 날들이 이미 코앞에 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로 논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노대원 평론가는 조금 더 이론보다는 실제에서의 AI를 다루고 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상 속에서 불가할 문제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지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신인들의 관문 중 여전히 가장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신춘문예에 관해서다. 그는 소단락으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AI와 게임의 법적: 신춘문예의 AI 금지 논란'이나 '신춘문예 공모 안내에 AI 사용 금지 문구를 넣는 것' 등이 다. 아울러 문학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명한 관련 현상 역시 짚어보고 있다. 'AI와 고백의 기술: 전우원의 웹툰 몽글몽글' 그리고 'AI 영화라는 어두운 숲: 이연진의 AI 영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AI의 저작권 쟁점: 파나마 프로젝트에 관한 질의와 응답도 빠뜨리지 않고 다뤘다. 노 평론가는 AI의 수많은 이론과 개념 대신 문화 전반에 당장 나타나고 있는 AI의 활용 사례를 통해 그 현상을 살피고 있다.

노 평론가는 이에 대해 "우리는 AI라는 비인간 동료 예술가를 갖게 됐다. 의인화를 경계한다던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그리고 위험한 도구라 곁에 생겼다. 예술이 높아지면,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위험한 놀이려면, 그 도구는 예술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설렘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사랑 향한 근원적 열망...과감한 비유 돋보여

김중 신작 시집 '꽃잎 한 장보다 작은' 출간 5부 구성 105 작품...“자연·삶의 결” 조망

광주를 중심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쳐온 김중 시인이 제14시집 '꽃잎 한 장보다 작은' (시와사평刊)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제목 그대로 '꽃잎 한 장보다 작은' 존재들의 빛을 다스림 바라보게 하는 섬세하면서도 따뜻한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동시에 무등산과 섬진강, 어머니와 주머니, 별과 허공 등이 서로 이어지고, 사소한 일상은 우주적 상상력으로 확장된다.

'꽃잎 한 장보다 작은'은 그러한 시 세계가 한층 농축된 형태로 펼쳐지는 '사유의 도둑'이자 오랜 세월 시와 함께 살아온 한 시인이 보인 조용한 인생 보고서로, 작은 꽃잎, 작은 별, 작은 사람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시선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조장한다.

"김중의 시는 우주이며 생명이고 사랑이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되듯 그의 시 세계는 개별 시편의 소박한 이미지들을 넘어 존재의 기원과 상처, 회복, 그리고 사랑을 향한 근원적 열망을 발산하고 있다.

시집의 제목이 담긴 '묘비명·1'에서 화자는 '나는/ 꽃잎 한 장보다 작았지만/세상의 꽃잎이 웃어 주었다/감사하다'고 고백한다. 자신을 하찮거나 작디작은 존재로 낮추면서도 그 작은 존재들을 향해 웃

어 준 '세상의 꽃잎'에게 보내는 감사의 시선은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정조다. 여기에는 시인이 도달한 겸허한 자기 인식과 그의 시를 지탱해 온 사람·자연·시간에 대한 따뜻한 심정적 언어가 응골 지나는 반응이다.

또 시 '주머니에게'에서는 어머니를 '밭상', '아랫목', '등 굽은 사과나무'로 호명하며 '이 살 저 살/꺼내 먹이시는/어머니라는/허공/그 무량한/주머니!'라고 노래한다. 어머니의 품은 자식을 먹여 살리는 살자, 끝없이 품어주는 허공이고 무량하게 제공하는 주머니로 인식한다. 이 시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혈육을 넘어 삶 전체를 감싸안은 '세계의 품'이자 '윤리적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그의 시가 지닌 특유의 언어적 생략과 과감한 비유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시집 곳곳에는 시인이 살아온 지역과의 인연들이 구슬처럼 총총히 박혀 있다. 무등산과 영산강, 보성, 팔호당, 만귀정, 서호, 정도리 깃들발 등 구체적인 지명이 시 제목이자 시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무등산'에서 시인은 '식은 자의 가슴에 불을 넣는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불을 넣는다'고 노래하며, 무등산을 상처 입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품으로

형상화한다. '팔호당연꽃'에서는 팔남매의 효성과 어머니의 정성이 연꽃의 향기로 승화되는 과정을, '만귀정'에서는 저녁 무렵 정자에 걸리는 빛과 바람,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늦은 귀가를 기다리는 집'의 정서를 아름답고도 섬세하게 담아낸다. 이처럼 시인의 시에서 고향과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 윤리와 향기를 품은 살아 있는 인물처럼 기능한다.

일상의 사소한 사물들이 우주적 상상력으로 도약하는 시선도 이 시집이 지닌 남다른 매력이며,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 성찰의 언어들이 더더욱 묵직한 시선으로 다가오는 점도 이번 시집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 시집은 '시인'을 비롯해 '봄날'과 '초승달', '문득', '별들의 저녁' 등 총 5부로 구성됐으며, 분주한 일상 속 틈틈이 창작해온 시 105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신병은 시인은 표사를 통해 "김중의 시는 우주이고 생명이며 사랑이다. 이는 그대로 모두에게 하는 통상의 하모니고 삶이다. '무등산'에서 시인은 '식은 자의 가슴에 불을 넣는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불을 넣는다'고 노래하며, 무등산을 상처 입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품으로



의 마음을 읽어가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김나루 시인은 "한번의 붓놀림과 채움과 비움을 함께 그려내듯, 짧은 행과 절제된 어휘로 일상과 자연의 결집을 울림으로 남긴다. 시인의 문장은 독자로 하여금 비어 있는 자리의 숨결을 보게 하며, 말하지 않은 곳에 존재하는 자연과 삶의 결을 다시 더듬게 한다"고 언급했다.

화가와 서예가로 활동 중인 김중 시인은 전남 나주 출생으로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가 당선돼 등단. 시집 '장미원', '배중손 생각', '그대에게 가는 연습', '간절한 대목', '독도 우체통' 등 13권을 펴냈으며 제1회 한국기시문학대상과 백호인재문학대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문인협회장 등 두루 역임했으며, 미술분야에서는 신동아 미술세 대상, 광주·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작품전을 열내치려 가졌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26 ACC 나브루즈 축제'를 21일 문화정보원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축제에서 공연을 선보일 타지키스탄 국립 필하모닉 신하 국립무용앙상블 Lola.

중앙아시아 전통 축제 나브루즈로 '봄맞이' ACC, 21일 문화정보원서...타지키스탄 공연 등

봄의 시작을 기념하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 대표적 풍습인 나브루즈, 이를 기념한 타지키스탄 예술가 초청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2026 ACC 나브루즈(Navruz) 축제'를 오는 21일 문화정보원에서 선보인다.

'나브루즈 축제'는 중앙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타지키스탄에서 새해를 기념하는 행사다. 나브루즈는 봄의 시작을 새로운 한 해의 출발로 삼는 의미로, 자연의 순환 속에서 희망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뜻을 함의한다. 한국의 춘분과 같이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는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서로 다른 문화권 간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축제로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나브루즈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나우르즈' 등 다양한 이름과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이번 축제는 그 고유한 의미를 조명한다.

이번 행사는 ACC와 주한타지키스탄대사관이 문화협력 프로그램으로 함께 마련했으며, 축제에는 타지키스탄 현지 예술가들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타지키스탄 고유의 예술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먼저 이날 오후 2시 문화교육실5에서는 고려인네트워크 김림마의 이사와 참여로 전통공예품 제작 워크숍이 이뤄진다. 오후 3시 문화정보원 극장 3에서는 카는 연주자 글자를 조이도바, 타지키스탄 국립 필하모닉 신하

국립무용앙상블 Lola(톨라), 음악인 수루스 홀로브, 니고라 홀로바가 꾸미는 무대가 마련된다. 공연 종료 후에는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타지키스탄 전통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을 예정이다.

행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양국 간 문화교류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산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ACC는 그동안 아시아스트리텔링위원회 중심으로 양국 작가들이 참여한 그림책 공제 등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타지키스탄과의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ACC는 이번 공연이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포럼 'Navruz-A Bridge Connecting Cultures and Civilizations'으로 이어져 나브루즈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나브루즈'는 서로 다른 문화권이 새봄과 새로운 시작을 함께 기념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전통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더욱 깊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CC는 아시아 각국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한 사전 신청이나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전통공예 워크숍과 공연은 좌석 및 체험 재료 준비 등에 제한이 있어 사전 신청을 권장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제2회 광주학생미술대전' 열린다

(사)광주미술관회, 광주지역 초·중·고 재학생 대상 1차 접수 내달 1~8일...시상식 8명 등 총 60명 시상

(사)광주미술관회(회장 김영희)는 광주신세계백화점 후원 아래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미술 역량 강화 및 미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2026 제2회 광주학생미술대전'을 실시한다.

'2026 광주학생미술대전'은 '평화'를 주제로 하며, 1차 출품작 접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로 광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작품은 재료 제한없이 8절지(초등 1~

3학년) 또는 4절지(초등 4학년 이상) 도화지에 그린 뒤, 작품을 촬영한 사진과 참가신청서를 첨부해 이메일(artmo2mo@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접수된 작품 중 선정된 학생은 4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현장 시상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주제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제시되는 '평화'의 세부 슬로건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진행하게 된다.

광주시장상 8명 등 총 60점을 선정해 시상하며, 시상식은 5월 2일 가질 예정이다.

수상작들은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광주시립미술관(5월 2~10일)과 광주신세계갤러리(5월 13~19일)로 장소를 옮겨 전시가 진행된다.

김영희 회장은 "이번 광주학생미술대전이 광주지역 청소년들에게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역 미술인재 양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는 광주미술관회 홈페이지(https://clubgma.org/)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62-531-8896.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